

금호타이어 노조 13~14일 또 부분파업

특근 등 거부... 21일부터는 매일 근무조별 파업

노사, 오늘 입장 표명... “광주시 나서라” 여론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제시안에서 임단협을 타결합시다. 다음 임단협때 내가 노조의 입장을 대변해서라도, 여러분의 요구를 관철하겠습니다.”

박흥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를 만나 제안한 말이다. 워크아웃을 이제 막 졸업한 만큼, 회사가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를 넘긴 임단협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 수장의 말도 통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9일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필수요원과 방산요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에게 13·14일 4시

간의 부분 파업을 골자로 한 투쟁지침을 내렸다. 12일에는 해당 근무 외 특근과 밀어내기 근무 등을 거부기로 했다. 아예 21일부터는 매일 근무조별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33차례라는 역대 최장기 본교섭 기록을 쓰면서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가 또 한번 파업카드를 꺼낸 것이다.

노사의 주요 쟁점은 임금 체계다. 노조는 5년간의 워크아웃 기간 기본급 10% 삭감과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 축소에 따른 임금삭감액이 모두 3500억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와 올해 1인당 평균

2100여만원을 인상해 평균 인상률이 25.6%에 달하고 이는 경쟁사에도 버금가는 수준인 만큼 파업을 풀고 임단협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아직 노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라며 강경한 뜻을 밝혔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상공회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정계와 재계가 잇따라 노조를 설득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노사 모두 “상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오전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금호타이어 노조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반대투쟁도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금호타이어도 노조의 파업 재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노사의 주장 모두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장기화될 수록 지역 경제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이 잦아질수록, 협력업체는 물론 광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서라도 대화의 장을 주선해야 한다”며 “과거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서 가차광주공장이 타이어 확보에 애를 먹었던 일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전남 휘발유 평균가격 1552원

전국 평균보다 7.4원 비싸다

광주는 1530원

전국 휘발유 평균값이 1당 1544.6으로 27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평균 휘발유값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픈넷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에 따르면 11일 전남 지역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남보다 2.84원 하락한 1552.01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7.41원 높고,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1513.90)보다는 38.1원 비싼 것이다.

광주 지역은 1당 평균 1530.3원으로 전남에 비해 2.09 내려 경남·경북·전북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저가는

광주 광산구 동곡로 진양주유소로 1당 1339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최고가인 1799원과 400원 차이를 보였다.

지역 주유소 업체 관계자는 “정유사의 12월 마지막 주 휘발유 실제 공급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앞으로 1300원대 주유소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1일 현재 전국에서 가장 싸게 휘발유를 파는 곳은 충북 음성 감노리의 상평주유소로 전국 평균 보다 159원 낮은 1당 1385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1300원대 주유소는 광주 1곳을 포함해 전국에 10곳이 남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I 영향 ... 오리·육계 사육량 줄고 산란계 증가

호남통계청 ‘4분기 가축동향’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서 오리와 육계 사육량이 줄어든 반면 산란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란계와 젖소, 돼지는 증가한 반면 오리, 육계, 한·육우는 감소했다.

산란계의 경우 403만마리로 전분기보다 45만1000마리(12.6%) 증가했다. AI 발생으로 인한 산지 가격 호조, 계란수요 증가를 예상한 입식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AI에 민감한 오리와 육계는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우선 오리의 경우 227만4000마리로 전분기보다 140만8000마리 감소했다. 비율로는 38.2%나 줄어든 셈이다. 육계도 1133만5000마리로 전분기보다 93만

5000마리(7.6%) 감소했다.

AI 발생으로 인한 집단 폐사와 이에 따른 입식 지연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사육 가구주 감소도 두드러져 오리는 2013년 12월 330가구에서 지난해 12월 177가구로 반토막났고, 육계농가도 185가구에서 169가구로 감소했다.

한·육우 역시 송아지 생산 감소 등의 여파로 사육두수가 45만1000마리로 전분기보다 3.3%(1만5000마리) 감소했다.

이에 반해 돼지는 지속적인 가격 호조와 연말특수 대비 출하 지연 등의 여파로 사육두수가 106만4000마리로 전분기보다 6.4% 증가했고, 젖소는 원유 수취 가격 호조에 따른 생산 증가로 전분기보다 1.7% 증가한 2만9500마리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신보재단 ‘빛가람 나주지점’ 본격 영업

전남신보증재단은 나주 빛가람형 신도시에 나주지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지점은 자금난을 호소하는 나주와 화순 지역의 8000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양질의 신용보증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나주지역은 4600여개 업체 중 1300여개 업체가 전남신보를 이용해 오고 있으며, 이번 지점 설치를 계기로 이용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나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증서 받

금을 위해 화순지역까지 가야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남신보는 나주지점 설치를 계기로 원스톱 보증서비스를 구축하고,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금융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로 기업 활동이 활발해 질 것에 대비하고, 원도심 상권보호를 위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경제사업 조기 추진 발대식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 임·직원들이 9일 진도 임회면 대파밭에서 수확한 대파를 들어 보이고 있다. 농협전남본부는 이날 봉사활동과 함께 경제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현장발대식을 갖고 올해 농축산물 판매사업 3조7000억원 달성을 결의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감정가 396만원 자은도 임야 3억에 매각

여수·신안지역 섬 경매 응찰자 대거 몰려

자연환경이 우수한 전남지역 섬이 투자 대상으로 높은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수와 신안 등 전남의 섬에 투자자들이 몰리며 법원 경매 낙찰 물건 중 ‘전국 응찰자 수 톱(TOP) 10’에 5곳이 이름을 올렸다. 투자자가 가장 많이 몰린 물건은 여수시 남면 화태리 인근 토지로 응찰자 48명이 몰려 1위를 차지했다. 이 토지는 화태도 중심부 2319㎡ 규모의 임야로 국립공원이자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업용 산지 등으로 자연 환경이 수려한데다 현재 육지와 연결되는 연륙교가 공사중인 것을 감안해 응찰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감정가가 301만4000원이었으나 1472만원에 매각돼 매각가율도 488%를 기록했다.

또 화태도 소재 밭(田)과 주택도 함께 경매가 진행됐는데, 밭에는 41명, 주택에 33명 등이 몰려 해당 물건 모두 12월 최다 응찰자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신안군 자은도 임야 경매에 40명이 몰렸다. 396㎡의 임야는 감정가가

396만6000원이었으나 매각은 3억150만원에 이뤄져 매각가율이 7602%에 달했다. 증도면 병풍도 임야에도 36명이 몰려 섬에 대한 투자 열기가 가득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92%를 기록하며 2013년도에 비해 2.7% 증가했다. 전년 5개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8.6%포인트나 낙찰가율이 높아졌다. 반면, 진행물건 수는 크게 감소해 2013년보다 300여건, 5개년 평균 대비 1700여건 이상 감소했다. 지난 5월 경매가 진행된 서구 풍암동 대지는 무려 142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95%인 45억1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응찰자가 참여한 경매물건으로 기록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632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숫자	
15	18	21	32	35	44	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432,587,716				11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0,507,901				52	
3	5개 숫자일치	1,596,603				1,645	
4	4개 숫자일치	50,000				78,418	
5	3개 숫자일치	5,000				1,320,223	

30년 전통의 -

민우액자표구화랑

영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매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 경 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약국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백합촌

오늘의 물 좋은 요리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 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추가시 5,000원 추가
백합세트 (탕+무침+구이)	50,000원
백합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옆 담양골 건너편)

T (061)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 친절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283-2322

F (061)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검찰청 정문앞